

## <애니미즘> 전 (일민미술관, 서울, 2013. 12. 6 - 2014. 3. 16).

홍성욱\*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에는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던 1550년경에 스페인 사람들과 브라질의 아마존 인디언들 사이에서 각각 벌어졌던 논쟁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그 논쟁인 즉 이런 것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새로 발견된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영혼이 있는가를 놓고 논쟁을 했다. 여기에서는 아마존 인디언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교화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인디언에게 영혼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한편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그들을 정복하러 온 스페인 사람들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가가 논쟁거리였다. 영혼은 나무와 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점은 자명했는데, 이들도 신체를 가진지가 분명치 않았던 것이다. 브라질 주민은 스페인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인 뒤 그 시체가 썩는가를 보고 신체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한다. 이 사례를 놓고 라투르는 묻는다. 누가 더 과학적인가?!)

STS 전공자인 우리들은 라투르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대칭적으로 다루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아마존 인디언들은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유럽에서만 통용되던 개념인 ‘과학적’이라는 기준을 양쪽 모두에 무차별

---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전자우편: comenius@snu.ac.kr

<애니미즘> 전시 작품 중에서 <비인간적 권리>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문지호 학생, 전시와 관련된 여러 도움말을 준 일민미술관의 남선우 큐레이터, 자신의 비디오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 안젤라 멜리토폴로스에게 감사를 드린다.

1) 라투르 (2012); 홍성욱 (2012) 참조.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시’ 인디언들의 세계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나무와 돌에 영혼이 있고, 자기가 그런 영혼과 상호 소통한다고 얘기하는 할머니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에 정령이 가득하다고 믿는 할머니의 무속신앙과 희스입자도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근대과학과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판은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나 비인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성을 가졌다는 주장이 아니라, 전근대 세상이나 식민지 원주민들의 세상에 등장하는 숲의 정령, 나무의 영혼과 같은 존재들이 근대적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물질적인 존재들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서구의 근대적 세계관은 물질과 영혼을 엄격하게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혼과 같은 존재자를 쫓아냈고, 영혼은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물론 나중에는 인간에게서도 영혼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상실했지만). 세상의 이차적 성질들은 모두 허상이 되었으며, 우주는 살아있는 것에서 죽은 것이 되었고, 우주의 모델은 유기체에서 시계로 대체되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과학적인 야만인이었다. 이런 야만인들은 계몽의 대상, 정복과 교화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살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근대과학의 업적을 무시하고 비과학적인 존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니! 그것도 21세기에!

근대적 세계관에 대립되는 전근대적, 혹은 식민지 원주민의 세계관의 핵심이 ‘애니미즘’이다. 애니미즘은 기호와 대상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대상에 영혼이 있다고 보고, 인간 주체가 이런 세상의 대상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경계도 모호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리뷰하는 <애니미즘 Animism>전은 2012년 봄에 독일 큐레이터 안젤름 프랑케(Anselm Franke)에 의해서 처음 기획되어 베를린의 <세계 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에서 첫 전시를 가졌고, 이 베를린 전시가 호평을 받은 뒤에 중국의 심천 등 다른 도시에서 순회를 하다가 2013년 12월에 서울에 들어온 전시이다. 이번 서울전에서는 원래 독일에서 전시를

했던 외국 작가들 외에 박찬경 작가 같은 8명의 국내 작가들의 전시가 더해져서 총 37명의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를 처음 기획했던 큐레이터 프랑케는 영혼과 물질, 생물과 비생물, 주체와 객체 사이의 근대적 경계가 근대 유럽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근대 유럽인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 앞에 ‘올바른’ 혹은 ‘객관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전시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sup>2)</sup>

이 <애니미즘> 전에 전시된 작품 중에 특히 STS 학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은 안젤라 멜리토폴로스(Angela Melitopoulos)와 마우리시오 라자라토(Maurizio Lazzarato)의 공동작업인 <배치>(Assemblages)와 파울로 타바레스(Paulo Tavares)의 <비인간적 권리>(Non-Human Rights)이다. 멜리토폴로스와 라자라토의 <배치>는 의사이자 철학자이면서 들뢰즈와의 협동작업으로 유명한 가타리(Félix Guattari)의 핵심 사상인 ‘배치’에 대한 비디오 작업이다. 이 작업은 가타리에 대한 생전 인터뷰와 생 알반 정신병원과 라보르드 진료소에서의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영상 기록, 프랑스와 남미의 학자들에 대한 인터뷰들, 페르낭 들리니(Fernand Deligny) 등의 영화에서의 발췌 등이 이어져 있다. ‘배치’는 가타리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그의 철학에서 이는 이종적인 실체들을 묶어서 연결하는 과정, 혹은 이런 실체들의 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연관과 생성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안정적이지 못한 유기적·비유기적인 요소들이 다중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가타리의 배치 개념을 통해서 작가들이 다시 조망하려는 개념은 ‘주체’와 ‘주체화’(subjectivation)이다. 근대과학과 근대적 세계관에서 주체는 객체와의 분리와 거리두기를 통해 정의된다. 마음을 가진(데카르트에게 마음은 곧 영혼이었다) 주체는 마음이 없는 대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정의되며, 이렇게

---

2) 프랑케 (2013); “Animismus. Interview mit Anselm Franke, Kurator” (2012. 5. 4) <http://vimeo.com/41587969>

정의된 주체는 대상과의 거리 때문에 일종의 초월적인 위치를 점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지만 애니미즘이 보여주는 주체는 세계의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대상’과 흡사한 것이다. 주체는 세상의 다양하고 이중적인 존재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주체화), 나라는 한 인간의 정신 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넓게 퍼져있는 것이 된다. 이런 애니미즘의 세계관 속에서 나의 주체는,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세상에 있는 여러 존재자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침투한다고 느끼듯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된다. 즉, 모든 주체는 “세계 주체”(world subjectivity)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주체가 인간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며, 인간과 자연은 더 이상 대립하거나 갈등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러한 애니미즘적인 주체의 개념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초기 하시디스트(Hasidic) 유대교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도 발견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 3세계 원주민들은 물론 하시디스트 유대교와 스피노자의 철학 모두가 근대 유럽에 의해서 억압되었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니미즘을 되살려서 불러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유럽중심적인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다. 이 저항의 다양한 형태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의 ‘육체’(body)가 표현하는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에서 나의 몸은 집합적 배치에 속한 영혼이 만연한 존재이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내 몸은 영혼으로 충만한 세상의 영향들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즉 “발화의 집합적 배치”(collective assemblage of enunciation)인 것이다. 하나의 주체만을 요구하는 전지구적인 미디어의 영향을 거부하고 이런 집합적 주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가타리의 ‘분자적’(molecular) 저항의 핵심이며, 이는 단지 우리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자체를 지속적으로 탈식민지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근대’의 성과는 유럽중심적인 세계관만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었다. 라투르가 잘 보여주었듯이, 근대의 시작은 행위성을 가진 능동적 인간과 수동적인 비인간의 존재론적 분리를 낳았다. 이러한 근대적 시각을 내

재한 사회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2008년 에콰도르에서 통과된 자연(바위, 산, 바다 등)에게도 권리를 주자는 헌법은 이런 구분과 이에 근거한 차별적인 시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이번 <애니미즘> 전에서 작가 파울로 타바레스는 에콰도르 헌법 제정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총 3개의 TV에 나누어 전시했다. 3개의 TV에 담긴 영상은 모두 에콰도르 헌법 제정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과 행위자들은 각기 다르다. 첫 번째 TV에는 국회에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연설 헌법제정을 둘러싼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있다. 두 번째 TV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운동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세 번째 TV에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원주민들과 여성들, 환경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세 개의 TV는 각각이 독립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 목소리로 ‘자연의 권리’를 외친다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

세계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에콰도르의 사례는, 그렇다면 누가 비인간의 권리를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파울로 타바레스의 다큐멘터리 영상 마지막에는 라투르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라투르는 ‘사물의 의화’라는 개념을 통해 비인간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는 근대적 의회에 비인간을 추가시킨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잘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에콰도르가 헌법을 잘 이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파울로 타바레스가 라투르의 메시지를 영상에 드러낸 것은 에콰도르의 사례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작가의 목소리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의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과 정치적 혼란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에콰도르의 ‘헌법’이 자연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일 수 있지만, 비인간의 권리를 포함한 에콰도르의 새 헌법은 그런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이 유럽이 겪어 온 과거를 다시 겪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제국주의적인 유럽이 무시했던 존재

자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실험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사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매우 빠른 근대화 과정을 겪었다. ‘압축적 근대화’ ‘환원 근대화’로 표현되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경제적 발전과 실용성을 지고의 가치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거나 동원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비근대적인 ‘존재자들은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지평에서 사라져갔다. STS는 이렇게 사라진 존재들을 복원할 수 있을까? 전근대적인 정치를 비판하는 일만 해도 벅찬 우리가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STS가 예술적 감수성을 획득해야 하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에서 주체가 나라는 육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듯이, <애니미즘> 전은 우리에게 STS의 학문적 주체성이 지금 주어진 학문적 경계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 라투르, 브뤼노. 이세진 옮김. 2012.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사월의책.
- 프랑케, 안젤름. 2013. “애니미즘” 『애니미즘 Animism』, 10-31 쪽. 일민미술관.
- 홍성욱. 2012. “테크노사이언스가 만들어 내는 미궁에서 길 찾기 -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연세대학원신문』 198호 (12월 9일).